



## 미국 제조업 상승세,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나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4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3월에 비해 1.4p 상승한 54.8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2011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임.
  -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, 33개월 연속 경기 확장국면을 의미하는 50을 상회함.
  - 세부 지수로는 신규주문이 3월 54.5에서 4월 58.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, 생산, 고용, 수출 등과 관련된 지수도 높아짐.
  - 노무라 증권이 Ellen Zentner는 제조업 상승세가 경기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,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.
  
-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의 확장세가 글로벌 경기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반면 유럽 지역 제조업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  - 4월 중국 PMI는 3월에 비해 0.2p 상승한 53.3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함.
  - 중국 PMI의 상승은 1/4분기 8.1% 성장한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, 미국의 제조업 지수 상승과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.
  - 그러나 영국의 4월 PMI는 수출주문 감소 등으로 3월에 비해 1.4p 하락한 50.5로 나타났으며, 5월 2일 발표된 유로존 4월 제조업 PMI도 3월 47.7에서 45.9로 하락하면서 3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.
  - Financial Times는 미국, 중국 제조업 지수와 유럽지역 제조업지수의 상반된 모습이 세계 경제의 양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함.

(Financial Times, 5/1 등)